

## [ 오피니언 ]

## 월/요/광/장

김용기



한국경제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한국은 전형적인 고속성장 국가였다. 외화위기 이후 성장률이 이전에 비해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물가가 안정된 가운데 5%대의 고정한 성장세를 유지해 왔다. 복지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여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들에 비해 덜한 것도 고속성장에 따른 혜택을 국민 다수가 향유했던 경험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 겪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한국경제가 경험할 상황은 고속성장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모습으로 보인다. 성장률은 더욱 낮아지고 물가가 경증 뛰어오르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에 현실화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20% 이하로 곤두박질친 것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서만 이유를 찾기는 어렵다. 상당 부분은 경제적 상황의 변화가 초래한 정치적 결과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목표로 내걸었고 시대정신이

경제 살리기라 하였다. 출범 후 지난 3개 월간 정부는 특히 경제 살리기를 위한 노력에 모든 것을 걸었다. '747'이라는 공약은 선진 일류국가로 가는 과정을 수치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

## ‘저성장 고물가’의 정치적 결과

악은 변화된 경제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다.

경제성장률은 낮아지고 물가가 극히 불안정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일류국가가 될 수 있겠는가? 결국 경제가 살아난다는 어떠한 조짐도 느끼지 못한 국민들의 실망감이 정부에 대한 낮은 지지율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되면 정부 운영시스템의 근본적 변화가 불가피하다. 현재 정부는 유가 상승에 따른 상당한 고통을 재정을 통해 덜어주고 있다. 최근 발표한 10조원에 달하는 유류세 보조금이

그것이다. 통신과 생필품 가격은 강력한 시장개입을 통해 억제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금과 시장개입은 지속적이기 어렵다. 특히 보조금은 어려운 경제현실에 비추어볼 때 향후 다양한 명목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또한 중기적으로는 재정적자라는 벽에 부딪칠 것이다.

한국경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게 된 것은 물론 외생적 요인 탓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미국 등의 금융사들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확대한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정부와 기업은 일종의 딜레마 상황에 빠지게 된다. 정부 입장에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면 성장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금리를 인상시켜야 한다. 기업과 고용주는 임금 인상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고속성장에 익숙해졌던 한국경제가 저성장과 고물가 그리고 임금인상 억제라는 고통을 감당해낼 수 있는가이다. 경제적 불안정성이 높아질 것이지만 정부가 공급할 수 있는 복지의 양과 보조금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쇠고기 추가협상을 통해 국민이 납득한다 할지라도 정부에 대한 지지도는 쉽게 회복될지 의문이다.

1970년대 말 세계경제를 강타한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에 대한 기존의 관점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케인즈 경제학과 서구복지국가가 후퇴하기 시작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서유럽 국가들이 1980년대에 유류처럼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했던 것도 딜레마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 주체 간 상호 양보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사회통합의 역량이 취약한 우리가 어떻게 상호간 고통을 분담해야 할 '저성장 고물가 경제'에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 법조 칼럼

배형원



법관이 재판 날에 출근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집에 매고 온 넥타이를 재판용 넥타이로 바꾸는 것이다. 재판 준비를 마치고 법정으로 향하기 전에, 법복을 입고 나름대로 방법으로 마음가짐을 정리하는 것은 우리 법관들의 공통적인 일상이다.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유의 복장을 입도록 하는 직업은 많지 않기에 법관에게 법복은 큰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법관이 법복을 입기 시작한 것은 일본의 강점기 때부터지만, 해방을 맞아 우리 법관들은 일제의 법복을 벗고 평상복을 입고 재판을 하기도 했다.

1953년 우리 고유의 법복을 최초로 마련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검은 색

한 형태인지 법정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다면, 주변 사람들과 대화중에 “판사님이 망치로 ‘팡팡팡’하고 결론을 내려주세요”라는 얘기를 가끔 듣는다. 하지만, 우리 법정에서 ‘법봉(gavel)’이라고 불리는 망치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해주면 놀라는 사람들이 많다.

미국처럼 법관들이 법봉을 사용하는 나라도 있고, 영화나 드라마에서 극적인 효과를 연출하기 위해 망치를 두드리는 법관들의 모습만 봐왔을 것이기 때문에 이상할 일도 아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투사, 매니 등의 태풍도 기후변화로 인한

## 기 고

유재봉



이름다운 스위스에서도 ‘옹프리우’는 유럽의 지붕이라 불리며 유럽여행시 꼭 가봐야 할 곳으로 손꼽힌다. 눈 앞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알프스의 만년설. 이곳은 연중 한겨울이다. 요즘처럼 무더운 날씨에 옹프리우의 만년설을 떠올리면 시원한 마음에 더위가 물려서곤 한다.

하지만 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으던 옹프리우가 최근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눈과 빙하가 녹아 내리면서 하얀 설경 대신 검은 바위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런 추세라면 50년 뒤에는 더 이상 알프스의 만년설을 영원히 볼 수 없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투사, 매니 등의 태풍도 기후변화로 인한

수소불화탄소 등으로 각종 산업활동과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발생되고 있으며, 에너지 소비 증가 등에 따라 발생량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러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국제 사회는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이 세계 10위 수준인 우리나라가 이에 부응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또한 금년 환경의 날 주제를 ‘위기의 지구-기후변화 대응’으로 하고 슬로건은 ‘습관을 바꾸자-지구를 살리자’는 저탄소 경제’로 정하는 한편 지난 11일에는 ‘온실가스 줄이기 다짐대회’를

## 법복과 망치

운데 무궁화 무늬가 새겨져 있는 것이 특징이었고, 모자도 착용했다. 1966년에는 더욱 간소한 형태의 법복을 마련하는 의견이 제시돼 대학생들이 졸업식에 입는 졸업 가운과 같은 형태의 법복으로 변화되었으며, 이후 법모는 폐지됐다.

이 같은 법복의 형태는 30여 년간 유지되다가 1998년 새 시대에 걸맞은 법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새로운 법복이 마련되었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법관은 신규 법관부터 최고 법관인 대법관에 이르기까지 모두 동일한 법복을 입으며, 여성 법관의 법복도 타이의 형태만 다를 뿐 가운데는 동일하다.

요즘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재판을 소재로 한 경우가 많아 배우들이 법복을 입고 재판 장면을 연출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재판을 경험하지 않았던 국민도 우리의 법복이 어떤

법관들은 형사 재판이나 민사 재판 모두 서류에 의존하는 종래의 재판 방식을 탈피하고, 법정에서 사건 당사자들이 하는 말을 듣는 데에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원의 판결이 국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것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판결 선고 후 법봉을 두드린다고 해서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닐 것이다.

법복은 재판의 권위를 상징한다. 하지만, 이를 입고 있는 법관은 그에 따른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재판 진행을 하면서 당사자들의 거짓말에 화가 나기도 하고, 설득력 없는 주장은 무시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평상복을 입었을 때와는 달리 법정에서 입고 있는 우리의 법복은 법관의 자세를 가다듬게 하는 거울이라는 생각이 든다.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이제 눈 덮인 알프스를 볼 수 없는가

자연재해로 분석되고 있으며, 유난히 뚜렷한 사계절도 기상이변에 흔들리고 있다. 봄이 하면 어느새 여름옷을 입어야하고 무더운 여름이 신선한 가을 바람을 삼켜버릴 만큼 긴 여름이 지속되기도 한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로 2020년대에는 말리아 등 열대성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만연하고, 최대 17억명이 물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7년간 활동한 인공위성 사진을 비교한 결과 킬리만자로 산의 눈이 눈에 띠게 줄어들고 있으며, 2015년에는 킬리만자로 정상의 눈과 빙하가 완전히 녹아버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지구온난화를 가져오는 온실가스는 무엇이고 어떻게 발생되는 것일까?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로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개최하는 등 국민들의 지구온난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응은 이미 생존의 문제로 다가왔다’라는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일상 생활에서 에어컨 사용자제, 재활용의 생활화, 대중교통이용과 자전거기운동, 네트워크 매체를 활용하는 등 개인적인 행동으로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철학을 확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저소비, 환경친화적 생활방식을 습관화하는 노력에 우리 모두 동참하여야 할 때이다.

사람이 36.5도의 체온을 유지해야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듯이 지구도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 탈이 없다. 에너지도 절약하고 지구온난화방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 여름에는 네트워크를 줄여보자.

<영산강유역환경청 지역협력과장>

## 시각장애인 독서 활용 음성변환 시스템 활성화를

고시·소설 등 문학 작품도 알게 된다.

하지만 저작권 문제로 이 시스템 사용이 불투명하게 됐다. 한 대형 출판사가 시각장애인들이 읽고 있는 텍스트 파일을 삭제하지 않으면 저작권 위반으로 소송을 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한다.

물론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관련 법규를 새로 정비해 시각장애인들이 출판물을 자유롭게 파일로 변환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그래서만 시각장애인들도 다양한 독서와 최신 정보를 자유롭게 접할 수 있을 것이다. ▲김세준·광주시 남구 도운동

## 무질서도 전염된다 … 작은 것부터 범질서 실천을

뉴욕 지하철 경찰대에서 시험해 봤다고 한다. 뉴욕의 무임승차를 집중 단속했더니 불잡힌 사람은 7명에 한 명꼴로 수배자였고 20명중 1명은 무기를 갖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몇년 안 가서 지하철 범죄는 절반으로 줄었다는 것이다.

모든 질서와 공동체 생활, 공중도덕이 마찬가지다. 단속과 통제에 앞서 우리 스스로 생활주변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해 범질서를 존중되고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 ▲성열봉·목포시 온금동

## 시설

## 쇠고기 원산지 표시 단속 문제 많는데

한·미 양국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보장을 위한 추가협상을 타결했다.

정부는 추가협상을 통해 안전성 문제는 해결됐다고 하지만 국민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정부의 발표대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어느 정도 보장됐다고 하더라도 쇠고기의 원산지와 유통의 표기가 과연 제대로 이뤄지겠는가 하는 점에서 의문이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된 후 철저하게 원산지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력 부족과 정확한 원산지 판단에 필요한 검사법의 미비로 실효성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신고포상제 역시 일반인이 원산지 판단에 필요한 검사법의 미비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수입 서류에 나와 있는 원산지 표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수입한 양과 실제 조리에 사용한 양을 확인할 수 없는 것도 문제다.

신고포상제 역시 일반인이 원산지 판단에 필요한 검사법의 미비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원산지 표시에 위반 업소는 퇴출시키는 등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현행 원산지 표시제에 나타난 단속반 인력은 4천773명에 불과하다. 원산지 표시 대상이 늘어난 데 비해 단속

하는 적지 않다. 전체 화물차량의 70%가 과업에 동참, 물류대란을 빚었다. 삼성전자 광주공장은 19년째나 처음으로 공장 가동을 중단했고 여수국가산단의 석유화학 업체들도 피해를 입었다. 파업기간은 지난 2003년에 비해 짧았지만 피해는 더 클 수도 있다고 한다.

문제는 화물운송 업계의 고질적 병폐가 개선되지 않는 한 과업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다단계 화물운송구조다. 광주와 전남은 화주와 화물차주 사이에 3~4단계를 거치는 복잡한 물류체계를 안고 있어 화물연대와 화주들이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정부는 화물연대에 운송구조 개선과 표준요율제 법제화, 화물차 감차 등을 약속했다. 정부의 적극적 의지가 없으면 실현되기 어려운 사안들이다. 정부는 물류시스템의 근본적 개선을 약속한 만큼 선진 물류체계를 서둘러 구축해 과업 빌미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 無等鼓

석유로 먹고 살았던 알제리에서 태양광발전이 한창이다. 벼려진 땅인 사막에 태양광발전소를 만들어 유럽에 전기를 수출하고 있다. 삼성전자 광주공장은 19년째나 처음으로 공장 가동을 중단했고 여수국가산단의 석유화학 업체들도 피해를 입었다. 파업기간은 지난 2003년에 비해 짧았지만 피해는 더 클 수도 있다고 한다.

백열전구 추방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세계에서 처음으로 2010년까지 백열전구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뉴질랜드는 2009년 10월부터 백열전구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2018년까지 백열전구 사용금지로 전환된다.

백열전구 사용 금지를 겨우나 허락해온 우리나라에서도 환경단체가 반대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2009년 10월부터 백열전구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2018년까지 백열전구 사용금지로 전환된다.

우리나라에서도 환경단체와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백열전구 추방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석유수출국이 태양광발전국으로 변모, 현대문명을 밝혀온 백열전구를 박물관에서나 보는 세상이 멀지 않은 듯 하다.

<오주승 사회부장 jsoh@kwangju.co.kr>

## 光州日報

회장 許宰皓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禪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创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11(일간) | www.kwang